

30호

Issue & Review  
on Democracy

# 해외 민주화 운동 - 호주

신준식

호주 한인교육문화센터 활동가

# 해외 민주화 운동 - 호주

신준식

호주 한인교육문화센터 활동가

## 01

## 호주 민족민주운동의 맹아

1970년 중반까지만 해도 한인들의 호주 이민은 간헐적이고 극소수에 불과했다. 1970년 중반 다수의 한인들이 호주로 이주하게 되는데, 그것은 백호주의 폐지와 관련이 있다. 1901년부터 시행된 호주 정부의 백호주의 정책은 1973년 공식적으로 폐지된다. 이를 계기로 베트남 전쟁이 1975년 종식되면서, 베트남에서 근무하던 다수의 한인 인력들이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시드니로 이주해 왔다. 그들이 주류를 형성하다 보니 한인사회는 반공사상이 크게 작용하여 보수적이었다.

한인청년들의 운동이 싹트기 시작한 1980년 중반 호주에는 약 2만명 정도의 한인동포들이 살고 있었는데, 시드니에 80% 정도를 비롯하여 각주의 주도인 멜버른, 브리즈베인, 퍼스와 애들레이드에 주로 거주했다. 시드니에는 크고 작은 교회 40개 이상이 분포되어 있었고, 한인동포 70% 정도 대부분 보수교회에 다녀서 보수적인 성향이 강했다(김진엽, 1990: 223). 그래서 베트남을 거쳐서 온 사람들의 반공사상과 보수교회들의 영향으로 민족민주운동의 뿌리를 내리기엔 조건이 좋지 않았다.

이런 환경에서 동포청년들의 성향도 보수적이었는데, 그나마 호주에서 교육을 받은 청년들이 기독교청년연합운동 형태로 1982년 '재호 한인기독교청년회'(Korean Christian Youth Fellowship, KCYF)을 결성한 것은 다행이었다(김진엽, 1990: 65). 이 청년들은 매주 모여 예배와 성경공부와 친목을 나누다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들의 활동은 조국을 위한 기도회와 통일운동으로 발전하게 된다(대양주뉴스, 1988.5: 1). 1986년 4월에는 한국의 민주화를 위한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이들은 1972년부터 1984년 까지 해방신학에 기초한 도시산업선교회 총무로 활동하면서 노동, 인권운동 등의 이유로 4차례나 투옥된 바 있는 인명진 목사의 영향을 받았다. 그는 호주연합교단의 초청으로 1984년부터 1986년까지 시드니를 머물며 갈릴리 교회를 개척하고, 기독교청년들을 의식화시키기도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호주지역 청년운동이 교회청년들 중심으로 시작되었다. 재호 한인기독교청년회(이하 재호 한기청)은 1986년 3월 전두환 정권 때 노신영 국무총리가 호주를 방문하자 시드니 총영사관 앞 시위를 조직했다. "양심수 석방"과 "광주학살 책임자 처벌"을 요구한 이 시위는 호

---

주 동포사회 역사에서 한국정부를 상대로 한 첫번째 시위였다. 이 시위는 멜버른 출신 기독교 청년으로 한국 인천지역기독교청년 단체에서 활동하던 윤영모가 주도했다. 또한 광주항쟁 8주년을 맞아 재호 한기청이 1988년 5월 19일 '조국과 민족을 위한 기도회'를 마련하여 광주학살 관련 비디오를 상영하였다(대양주뉴스, 1988.5: 1). 그리고 1988년 11월, 시드니를 방문한 노태우 대통령을 향해 "양심수 석방하고 광주 시민 학살 원흉 처단하라"고 외친 노 대통령 호주 방문 항의 시위를 재호 한기청과 타민족 청년들로 구성된 Korean Support and Information Network (이하 KSIN)가 주최하였다(대양주뉴스, 1988.12: 36).

## 02

## 호주 민족민주운동의 태동

재호 한기청 활동을 하던 청년들 중 강병조 (현 호주 한인교육문화센터 대표), 임수경 방북을 도운 혐의로 18개월간이나 옥고를 치른 바 있는 김진엽 치과의사 (미국거주) 등 8명의 기독교청년들이 1987년 6월에 시드니 애쉬필드에 한국민족자료실 (Korean Resource Centre, KRC)의 문을 열었다 (김진엽, 1990: 75). 이 단체는 1989년 평양에서 있었던 제 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이하 평양축전)에 전대협 대표 임수경 학생이 참가할 수 있도록 도운 혐의로 국내 신문들이 대서 특필하는 바람에 유명해졌다. 이 일로 당시 한국민족자료실의 김진엽 초대 대표간사 (당시 부산 일신기독교병원 치과의료선교사)가 1년 6개월 투옥되어 고통을 당하기도 했다. 이 단체의 설립취지는 “이민사회에서 동포들의 권익향상과 조국의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것”이었다.

민족민주운동 관련 활동과 사업을 설립목적에 명확히 밝혔고 그 후 펼쳐진 활동과 사업으로 보아 한국민족자료실의 출범은 호주 민족민주운동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윤한봉 선생과 진보적인 청년들이 미국 동포들에게 우리말, 역사, 문화를 가르치고 한국의 현실을 세계에 알리고 평화와 통일을 추구할 목적으로 1984년 미국 나성에 민족학교 (Korean Resource Center, KRC)를 세웠다. 나성 민족학교는 한국민족자료실의 모체가 되었는데 (김진엽, 1990: 74), 나성 민족학교의 부리는 일제시대에 만주와 소련 등에서 독립운동을 하던 투사들의 구심점이 되었던 민족학교 운동에 두고 있다.

이렇게 호주 민족민주운동은 시작부터 미국 민족민주운동과 맥을 같이했으며, 한국민족자료실이 출범한 해인 1987년 8월, 재미 한국청년연합(이하 재미 한청련)이 주최한 해외동포대회에 강병조 운영위원이 참석하여 호주동포사회와 민족민주운동 상황을 알리는 발표를 하는 등 호주 청년운동 시작부터 미주운동과 교류와 연대했다(월간 톱우먼, 2007.4: 18).

## 03

## 호주 민족민주운동이 겪은 사건들

## 1. 노태우 대통령의 시드니 방문과 반대 시위

적은 동포 수와 보수적인 동포사회 분위기로 호주 시드니에서 민족민주운동이 성장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듯 했으나, 한국민족자료실은 1988년과 1989년 한국의 정치정세와 예상치 못한 사건들과 맞물려 성장하게 된다. 한국민족자료실은 1988년 5월 광주항쟁의 진실을 알리는 행사에서 광주학살 비디오를 동포들과 함께 보고 충격과 분노를 감추지 못한 채 진상을 알리는 활동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광주시민들을 학살한 주범들 중 한 명인 노태우 대통령이 1988년 11월 6일, 호주 시드니 방문했다. 한국민족자료실은 시드니 한인회를 설득하여 한인회 운영위원들이 노대통령이 주최하는 만찬에 불참하는 성과를 이끌어 냈다 (월간 톱우먼, 2007.4: 18). 한국민족자료실 운영위원들, 후원자들 그리고 타민족 활동가들은 노대통령과 수행원들의 숙소가 있는 Hotel Intercontinental과 교민들을 위한 만찬이 있었던 New South Wales 주 의사당 앞에서 있었던 두 차례 시위를 열어 다음과 같은 내용도 담은 ‘우리들의 주장’을 발표했다.

“노태우 정권은 전두환, 이순자의 처벌을 요구하는 전 한국민의 열망을 미온적, 반민중적으로 거부하고 사과문 아닌 변명문을 전두환씨로 하여금 발표케 하고 백담사로 도주케 함으로써 또 다시 한국민을 기만하고 군부정치의 허구성을 다시 확인케 했다. 일본과 미국은 남북을 가르고 군부독재와 매판자본의 제후로 민족경제를 수탈하고 빈익빈 부익부를 심화시켜 민족 대단결을 약화 시켰다. … 조국의 민주화 민족통일을 위한 군정종식, 외세의 축출을 위해 조국내의 민주, 민족세력을 지지하고 이에 모든 동포의 대동단결을 촉구한다” (대양주 뉴스, 1988.12: 36).

무엇보다도, 이 시위가 중요했던 것은 시위를 준비하는 과정과 시위를 통해 향후 호주 민족민주운동에 열정적으로 뛰어든 활동가들이 규합되었다는 것이다. 재호 한기청 출신으로는 강병조, 김진엽, 권기범, 박은덕, 이해경, 염종영 등 민중신학을 공부한 청년들과 신준식, 김승일, 김유미, 김성태 등 진보적인 청년들이 결집되었다. 그리고 1989년, 남북 남자 아이

스하키 공동응원과 제 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 참가 준비 과정과 임수경·김진엽 석방운동을 통해 백시현, 최문현, 남현주, 김성관, 박희수 등이 청년운동에 결합하게 되었다.

## 2. 분단 이후 최초의 남북 선수 공동 응원

한국민족자료실은 시드니 한인회와 협력하여 1989년 3월, 시드니에서 열렸던 세계 C플 남자 아이스하키 선수권대회에서 남북분단 이후 최초 남북공동응원을 펼쳤다. 평화분위기가 꽃 피는 지금이야 공동응원을 반대하면 오히려 이상하지만 당시의 한국사회나 시드니 동포사회의 분위기에서 남북공동응원은 전쟁을 기억하는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충격적이고 불경스런 행위였다 (월간 톱우먼, 2007.4: 18). 당시 응원단장을 맡았던 필자는 “아무런 기대도 없이 오히려 두려움 안고 찾아 온 시드니에서 터져 나온 아리랑 합창에 북조선 청년들 심장에서 눈물이 흘렀다. 백두에서 한라까지 우리는 하나다. 목이 터져라 소리치고 손이 아프도록 박수 쳤던 시드니 코리언들의 북녘 동포 사랑은 블랙타운 아이스하키 경기장을 감동으로 가득 채웠다”라고 회고한다.

당시의 감동스런 상황을 1989년 3월 23일자 한겨레신문은 다음과 같이 전했다. “3월 21일 밤 시드니의 블랙타운 경기장에서는 남·북한의 분단을 뛰어 넘는 감격적인 민족의 대항창이 울려 퍼졌다. 형식상의 고국을 대한민국, 조선인민공화국에 둔 ‘한국인’과 ‘조선인’ 1천 5백명이 열싸안고 ‘아리랑’을 합창하는 장면에 세계 각국에서 모인 선수들과 관중은 열렬한 박수와 환호를 보냈다. 이곳 텔레비전 방송은 한국인들과 조선인들이 ‘한겨레’가 되어 손에 손을 잡고 아리랑을 부르며 경기장을 도는 장면을 감동 어린 설명과 함께 오랫동안 전국에 방송했다.

세계 아이스하키 선수권 대회 경기 4일째인 이날 밤 7시에서 9시까지 계속된 DPRK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와 ROK (대한민국)의 첫 경기는 7-4로 북한이 승리했다. 그러나 이 경기는 어느 한쪽의 승리를 떠나 민족의 사랑이 승리한 장면이었다. 경기가 끝나 북한 국기가 게양될 때 남한에서 온 교민 1천명의 관중은 일제히 기립하여 박수를 쳤다. 배당된 1천석을 채우고도 입장하지 못해 밖에서 텔레비전으로 관전하던 약 5백명의 교민들도 박수로 호응했다. 북한 선수단 단장 김태용과 박종길은 “우리가 이겨서 미안하다”고 인사를 했다. 교민들은 쌍방의 선수들을 남·북한 구별 없이 열싸안고 아리랑을 불렀다.

오스트레일리아 아이스하키 연맹은 세계선수권대회를 조직하던 1989년 초, 남·북한 선수가 맞붙는 이날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것을 두려워했었다. 연맹위원장은 ‘재호 한인교민회’의 이주용 총무 앞으로 보낸 공函에서 한인교민사회의 협조를 각별히 요청했던 것이다. 데뷔 스레이터 위원장은 경기가 끝난 뒤 “코리안은 훌륭한 민족이다. 이렇게 멋진 운동정신을 발휘할 줄 몰랐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적잖이 걱정했었다”며 감탄했다.

교민들은 경기 예정 몇 시간 전부터 입장하여 자리를 잡았다. 여러 가지 크기의 태극기를

들고 왔다. 경기가 시작하자 태극기를 흔들며 응원했다. 그러나 얼마 후에는 태극기를 내려 놓는 수가 늘어났고, 경기 전반이 끝나기 전에 태극기는 보이지 않았다. 모두가 한쪽 국기를 흔들며 응원하는 것이 속스러워진 것이다. 교민들은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부르며 응원했다. 교민들은 남한이 득점을 해도 일제히 박수로 환영하고, 북한이 득점해도 박수로 격려했다. 그 순간 그들의 마음에는 남·북한은 없고 오로지 ‘한 민족의 형제’만이 있었다.

선수들의 경기 태도도 훌륭했다. 남·북한 대전에 앞선 3일간 9개 경기에서 다른 나라 선수들은 평균 30번의 반칙을 범했다. 그러나 남·북한 경기에서는 4번뿐이었다. 남·북한 선수들이 서로 상대방을 아끼면서 페어플레이를 하려는 태도가 관중 눈에도 역력했다. 북쪽의 김단장은 남한 선수들과 박갑철 단장에게 “이겨서 미안하다”고 인사를 했고, 박 단장은 “멋진 경기였다”고 만족을 표했다. 김 단장은 또 “남조선에서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른 것에 우리도 긍지를 느낀다. 외국에서 올림픽 이야기가 나올 때 마다 우리(북한)의 자랑처럼 기분 마음이 든다”고 말했다.

경기가 끝나고 북한 선수단이 경기장 안을 한 바퀴 돌 때, 경기장 안팎 1천 5백명의 교민은 “우리의 소원은 통일”의 노래를 불렀다. 많은 사람들의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시상식이 끝나고 퇴장할 때, 남북의 선수들과 교민들은 아리랑을 합창했다. 수 많은 외국인 관중들이 우레와 같은 박수로 ‘코리아’의 민족적 화해에 찬사를 보냈다” (한겨레신문, 1989.3.23.)

### 3. 평양축전 참가와 호주동포 청년운동의 성장

한국민족자료실은 1989년 2월, 평양축전 참가를 조직적으로 결정한 상태였기 때문에 남북공동응원의 막이 내리자, 7월 1일부터 8일까지 진행될 평양축전에 참가하기 위한 준비에 돌입했다. 4명의 회원을 참가시키기로 했는데, 대부분 회원들과 참가자들이 학생이라 항공료, 비디오 카메라 구입 등 비용을 모으는 것이 쉽지 않았다. 회원들은 많게는 몇 백 불부터 5불까지 모든 회원들과 많은 후원자들이 자금을 모았다. 항공료는 참가자가 반을 부담했고 한국민족자료실의 모금으로 충당했다.

1988년 까지만 해도 이렇게 많은 돈을 모으는 것이 엄두가 나지 않는 일이었지만, 노태우 대통령 방호 반대 운동과 남북아이스하키 공동응원을 거치면서 한국민족자료실은 많은 회원들과 후원자들이 생겨 가능했다. 평양축전 참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남북아이스하키 팀을 응원했듯이 한인들은 다시 한번 대동단결했다. 한국민족자료실은 평양축전 참가목적을 “시드니 동포사회와 호주사회에 북한 바로 알리기 운동을 전개하기 위한 바탕을 마련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평양축전에 참가해서 북한 관련 많은 정보를 수집하여 통일운동에 활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전대협이 대표 파견 협조 요청과 시드니 파견 안기부 요원의 방해 공작 등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봉착하기도 했으나 그 목적을 훌륭히 수행해 냈다 (김진엽, 1990:



103; 대양주뉴스, 1989.9.26: 6).

이런 목적을 가지고 평양축전에 참가한 청년들은 강병조 (현 한인교육문화센터 대표), 김승일 (현 한인교육문화센터 활동가), 박은덕 (현 시드니 소녀상 실천 추진위원회 대표), 권기범 (전 시드니 스트라스필드시 시장, 현 한인교육문화센터 회원)이었다. 지금으로부터 29년 전, 호주로 이민 온지 딱 1년만에 호주 영주권자로서 평양축전에 참가한 김승일은 남달리 결연했다. 북부조국에서 벌어지는 평양축전에 참가하게 되면 아주 오랫동안 또 하나의 조국에 살고 있는 친지들과 친구들을 못 만날 것을 각오한 그는 당찬 결정을 했다 (김진엽, 1990: 101).

그래서 김승일은 한국의 지인들을 만나러 5월 말에 서울을 방문하게 된다. 또 다른 서울방문 목적은 한국에서 평양 축전 관련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었다 (대양주뉴스, 1989.9.26: 2). 상상하지 못했던 커다란 일이 숙명처럼 그를 기다리고 있을 줄이야. 그는 두 번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기독교 단체인 EYC, KSCF, 고대영자신문기자 등을 만나서 평양축전에 대한 정보를 얻고, 준비상황과 평양에 가서 일주일 동안 한국의 청년학생들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알아 보려고 했다 (대양주뉴스, 1989.9.26: 6).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이하 전대협)의 평양축전 참가를 허용할 것 같았던 한국정부는 6월 중순부터 참가를 불허하는 쪽으로 흘러 가다가, 김승일이 호주로 돌아오기 하루 전인 6월 21일 오후 “이홍구 통일원 장관 주재로 남북교류 협력추진위원회 2차 회의를 열고 평양 축전에 전대협 등 대학생 참가를 불허키로 최종 결정, 발표했다 (중앙일보, 1989.6.21: 1).

이 발표가 있기 10일 전쯤, 김승일은 고대 영자신문 기자의 소개로 6월 12일, 한양대 학생회관에서 ‘명섭’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전대협 정책실장(정은철)을 만났다. 그와 호주 한국민족자료실, 해외동포들의 실태와 평양축전 관련 이야기를 나누었다. 한참 대화가 오가고 나서, 전대협 정책실장 정은철은 조심스럽게 전대협이 극비리에 평양 축전에 대표를 파견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날, 6월 13일, 그는 2명의 대표를 파견할 예정인데, 호주동포들이 도와 줄 수 있는지를 물어왔다. 여자대표는 ‘엔젤’, 남자대표는 ‘나비’라고 했다 (김진엽, 1990: 105-106).

6월 22일, 김승일은 호주로 떠나는 2시 50분 발 비행기를 타야 했는데 신촌에서 전대협 의장의 협조요청서를 가지고 오는 정은철을 기다렸으나 그는 나타나지 않았다. 1시 30분, 택시에 짐을 싣고 떠나려는 순간 뛰어 오는 그를 만났다. 김승일은 임종석 전대협 의장의 빨간 지장이 찍힌 ‘제 13차 청년학생축전에 전대협의 대표단 참가를 위한 실무 협조요청서’(이하 협조요청서)를 받아 들고, 출발 1분 전 마지막 승객으로 시드니 행 비행기에 올랐다 (김진엽, 1990: 108-109). 김승일은 재유럽 민족민주운동협의회 (이하 재유럽 민협)의 어수갑 씨와 인연이 있던 한국민족자료실 강병조 운영위원에게 부탁하여 전화로 그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어수갑의 승낙을 받고 나서, 협조 요청서를 팩스로 그에게 보냈다. 마침내 전대협대표 엔젤 (임수경)은 호주 한국민족자료실과 재유럽 민협의 도움으로 평양

축전에 참여할 수 있었다 (대양주뉴스, 1989.9.26: 7). 지금도 김승일은 29년 묵은 전대협 의장의 지장이 찍힌 간곡한 협조요청서 원본을 어머니 조국인양 곁에 보관하고 있다.

이 일로 한국과 시드니 한인 사회는 발칵 뒤집혔다. 안기부는 이 일을 마치 엄청난 간첩단 사건처럼 부풀려 발표했고, 한국의 신문들은 대서특필했다. 안기부가 여론을 통해 요란하게 떠들었던 북한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 → 재미 한국청년연합의 윤한봉 → 재미 한국청년연합 이지훈 → 호주 한국민족자료실 김승일 → 전대협 임수경으로 이어지는 전대협 대표 평양 축전 참가의 지령 경로는 이지훈과 김승일의 여권에 찍힌 호주 출국 및 입국 날짜 증명으로 허구로 들어 났다 (윤한봉, 2009: 258-259). 이렇게 순수한 청년들의 연대는 평화와 통일의 역사에 아름답게 기록되어 있고, 호주 시드니의 김승일은 그때와 같이 여전히 헌신적인 활동가로 조국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애쓰고 있다.

이런 활동으로 김승일과 함께 전대협 대표의 방북을 도운 호주 시민권자였던 김진엽 (한국민족자료실 초대 대표간사) 연합교단 치과 의료선교사가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는 죄목으로 조국의 철창에 갇혀 1년 6개월 옥살이를 하는 아픔이 있었다. 김승일의 부모님들은 한국에 있는 친구들이 서신 왕래 등 접촉을 꺼려 외롭고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다. 그러나 그분들은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셨고, 특히 모친 김춘순 여사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호주운동의 당사자이자 튼튼한 후원자이셨다. 당시 시드니에 파견된 안기부 요원들이 한국민족자료실 회원들을 협박하고, 그 부모들을 찾아가 회유하는 등의 탄압으로 회원들의 활동은 일시적으로 주춤했지만 오히려 호주청년운동은 발전했다.

한국민족자료실은 예상하지 못했던 전대협 대표의 평양축전 참가를 돕는 일로 고뇌와 갈등을 겪기도 했지만, 용기를 냄으로써 평화와 통일 역사에 기록되었다. 또한 한국민족자료실의 평양축전 본래 참가목적은 따로 있었다. 그것은 북한 관련 정보를 많이 수집해서 호주 동포들과 타민족들을 향한 통일운동의 한 방편으로 북한 바로 알기 운동을 하기 위한 것이었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우리 대표단은 그 당시 꽤 비싼 비디오 카메라를 구입해서 북한의 이곳 저곳을 찍고, 인터뷰해 온 비디오를 편집해서 동포들을 위한 북한 바로 알기 비디오 상영의 밤을 열었다. 한국민족자료실은 시드니 동포 300 여명과 함께 이 비디오를 관람하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이후 임수경·김진엽 석방운동과 국가보안법 철폐 운동은 호주 청년운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고, 미주 및 유럽 청년들과 연대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활동으로 발전하는 바탕이 되었다.

#### 4. 임수경·김진엽 석방 촉구 운동

국제사면위원회는 임수경 방북과 관련되어 구속된 활동가들을 양심수로 발표하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한국정부가 석방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한국민족자료실은 타민족 활동가들과 연대하여 임수경·김진엽 석방과 국가보안법철폐운동으로 다양한 활동들을 벌여 나갔

---

다. 1989년 9월 12일에는 한국민족자료실, Australian Student Christian Movement, Friends of Kim Jin Yeop Westmead Hospital, KSIN이 시드니에 있는 한국 총영사관 앞에서 시위를 조직했다. 이 시위에는 연합교단의 존 브라운 목사, 중국, 필리핀 이민자 대표들이 연설로 연대했고, 참석자들은 ‘김진엽·임수경을 석방하라’, ‘한국비밀경찰 물러가라’, ‘호주에서 평화스럽게 살게 가만 나눠 달라’, ‘호주정부는 즉시 김진엽 석방을 위해 행동을 취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9월 29일에는 시드니에서 차로 3시간 정도 거리, 캔버라에 있는 연방국회의사당 앞에서 시위를 벌리기도 했다 (한호타임즈, 1989.9.14: 1; 대양주뉴스, 1989.9.26: 3). 한국민족자료실 회원들은 10월 13일부터 3일간 단식투쟁을 통해 “노정권이 해외 민족단체를 친북단체로 매도한 것에 대한 철회와 김진엽 및 모든 양심수를 석방하라”, ‘국가보안법을 즉각 폐지하라’고 주장했다 (대양주뉴스, 1989.10.27:5). 이런 활동들은 국가보안법 철폐운동으로 발전되었다.

## 04

## 재호 한겨레 청년회 결성과 해외 한청련 출범

한국민족자료실은 체계적인 민족민주운동을 추진하기 위한 청년운동조직을 건설하기 위한 창립준비 추진위원회를 1989년 12월 만들어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했다. 1990년 1월에는 창립을 위한 집중 토론 및 단합을 위한 수련회를 진행했다. 이런 준비과정을 통해서 해외 운동 조직에 대한 학습과 재미 한청련의 활동 및 사업에 관한 문건 등을 검토했다. 1990년 2월 25일, 창립 총회를 통해 조직 명칭은 '재호 한겨레청년회'로 정하고 '창립선언문', '강령 전문', '강령'과 '규약'을 승인. 채택하고, 초대회장으로 신준식을 선출했다. 3월에는 시드니 동포 100여명이 모인 출범식을 통해 활동을 시작했다.

재호 한겨레청년회 '강령'은 다음과 같다. "재호 한청련 청년회는 조국과 민족을 사랑하고 조국의 민주화와 자주적 민족의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호주에 살고 있는 한 인동포들의 권익옹호와 대동단결에 앞장서면서 호주 다문화 사회에서 정의와 평화와 평등을 추구하는 동포청년들로 구성된 단체이다.

- 우리는 호주 이민 사회에서 구조적인 모순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는 동포들과 아픔을 함께 나누며 이를 극복하고 인간답게 살도록 다각적인 활동을 펼친다.
- 우리는 한민족의 얼을 살려 우리 전통문화의 계승과 호주사회에서 건전한 청년문화운동을 일으키는데 앞장선다.
- 우리는 해외동포, 남한동포, 북한동포가 민족통일의 3대 역량임을 설정하고 타민족 형제들을 보조역량으로 인식한다.
- 우리는 민족주의에 입각하여 남과 북을 하나로 보는 통일된 조국관을 갖는다.
- 우리는 남북 정권의 민족발전에 저해되는 요소에 대한 건설적인 비판을 통하여 우리 민족의 번영에 기여한다.
- 우리는 한반도와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외국 군대의 기지 철수와 반핵운동에 앞장선다.
- 우리는 민족의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하여 조국에 살고 있는 동포 그리고 중국, 미주, 일본, 소련, 유럽 및 타 지역에 있는 동포와의 연대에 힘쓴다.

- 우리는 호주 원주민 형제들과 타민족형제들과 연대하여 정의로운 호주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 우리는 타민족 형제들과 연대하여 제 3세계 민족해방운동에 기여한다.
- 우리는 활동을 위한 자금을 우리의 힘으로 마련한다.
- 우리는 주체적인 역량으로 합법적이고 공개적인 활동을 한다.

이 강령의 방향에 따라 재호 한겨레청년회는 1990년 4월부터 비영주권자 사면추진 운동을 펼쳤다. 이 운동은 시드니 캠퍼스에 있는 Beamish 거리에서 150여명이 참여하는 평화행진을 벌렸다. 이 행진은 이민자 방송인 SBS TV의 조명을 받기도 했다. 후속조치로 연방정부에 설치된 이민관련 특별위원회에 사면을 요청하는 편지 보내기 운동을 진행했다. 소수민족 관련 청문회에도 의견을 제출했으며 토론회에 참석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으로 다수의 한인동포들이 영주권을 받는 성과를 냈다(톱우먼, 2007.4: 20). 5월에는 1988년부터 진행 오던 광주항쟁 10주년 기념제를 알차게 준비하여 시드니 스트라스필드 카운슬 강당에서 개최했는데, 250여명의 시드니 동포들이 참여한 이 행사도 SBS TV에 보도되었다. 8월 18일에는 조국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범민족대회 지지 및 양심수 석방 촉구대회를 열었다. 이때, 미국에서 활동하던 윤한봉 선생을 초청하여 강연회를 열기도 했다. 윤한봉 선생은 1980년 광주민중항쟁을 이끈 운동가로 현상수배를 당하던 중 동지들의 권유로 81년 4월, 화물선에 숨어 태평양을 건너 35일만에 미국에 밀입국했다. 그는 미국의 민족민주운동을 활성화시켰고, 1987년 4월에 정치망명 허가를 받았다.

강연회 이후에 청년들을 위한 특별학습을 진행하여 재호 한겨레청년회 회원들은 해외운동 및 청년운동에 관한 인식의 폭을 넓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었다. 재호 한겨레청년회는 1990년 10월 뉴욕에서 열린 '조국의 평화와 자주통일을 위한 해외동포대회'에 박은덕, 권기범, 김대건 회원을 파견했고, 유엔본부 앞에서 진행된 남북 유엔분리 가입을 반대하는 단식농성에 김대건 회원이 합류하기도 했다(톱우먼, 2007.4: 20).

각 지역 청년운동체가 결성되자, 이 대회에서 재미한청련, 재호한겨레청년회, 재가한청련, 재유럽 한겨레청년회를 회원단체로 하는 해외운동사상 최초로 청년운동 연합체인 해외한청련(초대 공동의장 재미 - 정민, 재호 - 신준식, 재가 - 김나경, 재유 - 박희원)이 탄생하게 된다. 재호 한겨레 청년회(후에 재호 한국청년연합으로 개칭)는 타 지역 청년들과 연합하여 상호 보완적,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활동과 사업을 할 수 있었다. 하나의 예로 워싱턴에 있던 한겨레 미주 홍보원에서 한반도 문제를 정교하게 분석해서 만든 Korea Report 등 각종 영문 전단지들을 미국 각 지역, 유럽, 호주, 캐나다에 보내 주면, 그 지역 활동가들은 이 자료들을 활용하여 타민족 활동가들 및 전문가들을 향한 연대 활동을 할 수 있었다. 이런 연합운동은 해외운동의 질과 양을 한층 발전시켰다. 이는 해외운동사에서 칭송될 만한 가치가 있는 연합운동이었다. 이런 운동은 한국과 미국에서 긴 세월 운동을 이끌었던 탁월한 능력과

---

헌신적인 운동가 운한봉 선생의 도움과 해외 한청련 회원들의 성실하고 희생적인 활동으로 가능했다. 또한 장년조직인 미주 한겨레운동연합의 참여 및 지원과 해외 동포들의 정성스런 후원도 훌륭한 역할이었다.

이런 부분들은 해외 민주화 운동사에서 높게 평가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 이 연합운동의 전개와 성과에 대한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 05

## 재호 한국청년연합과 해외 한청련

해외 각 지역 활동가들은 1990년 10월, 해외 한청련이 결성된 이후부터 2004년 까지 2년에 한번씩 나성과 뉴욕에서 번갈아 해외 동포대회를 열었다. 항공료 분담 원칙에 따라 전체 참가자 항공료를 전체 참가자 수로 나누어 각자가 부담하는 것이었다. 이런 분담 원칙으로 유럽과 호주지역 회원들도 큰 부담 없이 대회에 참여할 수 있었다. 주관 지역 회원들은 항공을 이용하지 않아도 항공료를 부담하였다.

재호 한국청년연합 (이하 재호 한청련)은 호주 실정에 맞는 사업은 따로 실천했고, 해외 한청련 전체가 해야 할 일은 함께 해 나갔다. 재호 한청련은 1989년 결성된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전민련)을 통해 도움을 요청해 온 서울에 있는 웨스트팩 은행 노동조합을 돕는 활동을 전개했다. 이 은행이 노동조합의 임금 및 노동조건 향상 투쟁에 맞서 직장 폐쇄 및 철수를 강행하려고 해서, 이를 저지하는 하는 활동이었다. 재호 한청련은 호주노총, 호주는은행노조, 호주 건축노조 등과 호주연합교단 등 종교단체 등과 연대하여 그들의 원정 투쟁을 시드니와 멜버른에서 시위 및 단식 등을 통하여 지원했다 (주간생활정보, 1990.12.21). 이를 통해 재호 한청련은 호주내 노동조합, 종교단체, 진보적인 운동조직들과 연대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재호 한청련이 진행한 많은 활동과 사업들 중 중요한 것들을 설명해 보자. 먼저, 한국민족자료실이 진행했던 북한 바로 북한 바로 알기 운동을 계승하여 재호 한청련은 1991년 1월 11일, “남북 영화를 동포들과 함께 봄으로 동질성 회복하고 북부조국 바로 알기운동을 동포사회에서 일으킨다”는 목적으로 ‘남·북 영화의 밤’을 열었다. 이때 남부조국 영화는 ‘철수와 만수’와 ‘아제 아제 바라아제’ 그리고 북부조국 영화는 ‘홍길동전’과 ‘안중근 이등박문을 쓰다’를 상영했다 (호주동아, 1991.1.18). 1991년 6월에는 공안통치 종식과 민주정부 수립을 위한 범 동포 대책회의를 꾸려 동포들의 서명을 받는 일을 진행했다 (호주동아, 1991.6.7).

1991년 중순에는 재호 한청련 (회장: 신준식)은 조국통일범민족연합 호주본부 (이하 범민련 호주본부, 위원장: 안종수, 사무국장: 신준식)와 함께 미국과 남부조국 정권의 전쟁 획책 음모 저지를 위해 동포신문 광고와 글쓰기 운동을 전개하였다. 5월 10일에는 시드니 소재

---

미 영사관 앞에서 시드니 동포와 타민족 반전 평화운동가들이 반전, 평화 시위를 벌였다. 이 자리에는 전대협 평양 축전 참가를 도운 혐의로 투옥되었다가 추방당한 김진엽 치과의사가 연설자로 참여하여 유창한 영어로 코리아를 들러 쓴 전반적인 정세를 분석하여 설명하기도 했다.

1991년 4월 26일 백골단이 휘두른 쇠파이프에 강경대 학생이 꽃다운 나이로 세상을 떠났고, 5월로 이어지는 분신정국에서 재호 한청련은 5월 17일, 시드니 소재 한국 총영사관 앞에서 시위를 조직했다. 5월 18일에는 광주항쟁 11주년 행사에서 끝날 줄 모르는 죽음의 행렬에 호주동포들과 타민족 형제, 자매들과 슬픔을 감추지 못했고, 노태우 살인정권 퇴진 운동을 전개하기도 했다. 5월 24일에는 '공안통치 종식과 민주정부 수립을 위한 범동포 대책회의'를 구성하여, 총영사관 앞 시위, 동포신문에 호소문을 냈으며 (호주동아, 1991.6.7), 6월 한달 동안 서명운동을 벌리기도 했다.

1992년 1월에 해외 한청련과 한겨레운동 미주연합은 '소식지'를 창간하여 각 지역의 활동, 사업 그리고 회원 동향을 공유할 수 있었다. 곧 소식지 이름을 '한솔밥'이라 지었다. 2년마다 열었던 해외동포대회는 각 지역 활동과 사업을 점검하며, 연합 사업을 토론하고 계획을 세우는 등 이 대회는 해외 청년운동의 큰 흐름을 짚는 중요한 행사로 자리잡았다.



## 06

국가보안법 철폐 및  
양심수 석방 촉구 운동

재호 한청련은 임수경·김진엽 석방운동 연장선상에서 1991년 11월부터 민가협 양심수 후원회와 연대하여 한국의 4천 7백여명의 양심수를 작게나마 지원하기 위한 카드 판매사업을 벌이기도 했다(주간생활정보, 1991.11.30). 이 사업은 1992년에도 실천했다(동아일보 호주판, 1992.11.6). 이런 활동들을 발전시켜 재호 한청련은 1992년 7월, 국가보안법 철폐 및 양심수석방을 위한 호주본부(이하 국보법 철폐 호주본부, 위원장: 배기홍, 사무국장 - 신준식)를 결성하여 본부는 시드니에 두고 멜버른에도 지부를 두었다. 이때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국내외 연대 투쟁이 처음으로 있었다. 한국의 감옥에 있는 양심수 900명이 국가보안법폐지를 요구하는 단식을 시작하자, 인권 운동가 500명이 명동성당, 부산, 대구, 광주 등 5개 시와 미국, 호주, 독일, 일본 등에서 동조 단식에 들어갔다(한겨레신문, 1992.7.24).

국보법 철폐 호주본부는 1999년 16일 New South Wales주 지사가 시드니를 방문한 김대중 대통령에게 베푼 오찬장인 시드니 달링 하버 Convention Centre앞에서 국보법 철폐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참세상, 1999.9.18).

## 07

## 코리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국제연대위원회 호주본부

재미 한청련과 재미 한겨레는 1989년 2월 열린 합동회의에서 평양축전에 참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평양 축전이 끝나면 타민족 평화 운동가들과 함께 코리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국제평화대행진’을 실행하기로 했다 (윤한봉, 2009: 227). 평양축전에 참가했던 임수경 전대협 대표가 이 행진에 참여함으로써 국제적인 주목을 받았다. 한편, 호주 한국민족자료실은 평양축전 참가를 1989년 2월에 결정했으며, 준비과정에서 전대협의 요청을 받고 평양축전 참가하려는 임수경 대표를 도와 안전하게 참가시키는데 까지는 성공했다. 그러나 평양축전 참가 호주동포 청년들은 재미 한청련이 국제평화대행진에 대해 사전에 알려주지 않아 모르고 있다가, 평양에서 참가요청을 받았으나 비행기 예약상 참여하지 못했다(김진업, 1990: 110).

1990년 10월에 결성된 해외 한청련은 중요한 연대사업으로 각 지역에 ‘코리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국제연대위원회를 결성 또는 활성화하려고 노력했다. 이 단체를 통해 세계에 코리아의 분단 상황과 실상을 알려, 평화를 정착시키고 통일을 위한 사업을 하기로 했던 것이다. 이런 계획에 따라, 1990년 3월에 출범한 재호 한청련도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아태지역 평화 운동가들과 명망가들을 규합해 나갔다. 1991년 4월 6일, 시드니 시내에 소재한 YWCA 강당에서 진행된 ‘국제연대위원회 호주지역 본부’ 결성식에는 많은 아태 지역 단체들 및 인사들이 축하 메시지를 보내왔다. 국내외 동포단체들도 재호 한청련의 국제연대 활동에 대한 격려의 인사로 ‘조국통일범민족연합 해외본부’ (독일), ‘평화연구소’, ‘민족자주통일 불교운동협의회’,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전대협)’, ‘임수경 후원사업회’,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멜버른 한겨레 독서회’, ‘재가 한국청년연합’ 등에서 연대사를 보내 왔다.

이 출범식에는 호주의 대표적 진보성향의 아시아학(Asian Studies) 전문학자이며 ANU(호주국립대학교) 주임교수였던 개빈 맥코맥(한국전쟁 - Cold War 저자) 교수도 참여했다. 호주 각계각층의 진보인사 및 한국의 철창에 18개월 갇혔다가 호주로 추방당한 김진업 연합교단 치과 의료선교사 등 호주동포 청년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제연대 위원회 호주본

---

부 결성식이 성황리에 거행됐다. 재호 한청련은 호주 정계, 학계, 노동계와 종교계의 진보적 인사들을 규합함으로써 코리아 통일과 평화를 위한 운동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 08

## 해방의 소리

국제연대위원회는 해외 한청련 차원에서 적극 참여하여 활성화시키려 했던 단체였다. 제 1차 국제평화대행진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재미 한청련과 재미 한겨레는 국제연대위원회가 주최하는 백두에서 한라까지 제 2차 국제평화대행진을 1991년 7월에 진행할 계획이었다. 남부조국 정부는 비협조적이었다. 북부조국 정부는 범민련이 주최로 참가할 것을 요청했고, 국제연대위원회가 동 단체가 주체하는 것이 국제적인 주목을 더 받는다고 주장했다. 국제연대위원회는 범민련이 후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허용하려 했으나, 주최문제에 의견을 좁히지 못해, 제 2차 국제평화대행진은 포기하는 대신 '해방의 소리'를 진행하기로 했다 (윤한봉, 2009: 247-248).

'해방의 소리'의 유럽과 호주 공연의 목적은 "코리아의 정치, 군사문제, 남한의 민중의 현실 및 민족민주운동 전반에 관한 다각적인 선전·홍보 활동을 통하여 코리아의 자주·민주·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한 우리 동포 및 국제지원 역량을 조직·동원하는 것"이었다. 이 공연은 격려사, 주제발표, 마당극, 풍물 공연, 다 함께 어우러지기와 사괘의 시간으로 구성되었다.

국제연대위원회가 주최한 '해방의 소리' 문화선전사업은 재미 한청련과 재호 한청련이 준비를 맡았다, 재미 한청련이 준비하고 재유럽 한청련이 결합한 유럽 공연팀에는 리더 격인 뉴욕 비나리 문화패의 정승진, 나성의 김준, 산호세의 이범식 그리고 뉴욕의 조민선 회원들이 참석했다. 호주 공연은 뉴욕에서 온 정승진과 오상묵 그리고 재호 한청련의 풍물패 소속 김성태와 김유미 등 6명이 결합해서 시드니 3회, 멜버른 1회 공연을 가진 바 있다.

우리 민족민주운동사에서 처음으로 주요 유럽 7개국 공연과 호주 2개 도시에서 4회 공연을 통해 문화운동으로 코리아의 문제를 세계에 알려 세계인의 찬사를 받은 바 있다.

# 09

## 결론

재호 한청련이 민족민주 운동의 대중성을 넓히기 위하여 설립한 유관단체로 문화와 교육 운동을 담당했던 시드니 민족교육문화원의 활동이 시작되기 전까지 '해외 민주화 운동- 호주'를 이렇게 마무리한다. 해외 한청련 활동이 마감되는 2004년 까지 호주 민족민주운동의 전성기 (1993-2004)와 침체기를 거쳐 호주의 촛불항쟁으로 새로운 도약기 (2005-2018)를 맞고 있는 호주 민주화운동을 서술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기대해 본다.

---

## 참고문헌

- 김진엽, 1990, 『내 조국의 철창에 갇혀』, 돌베개
- 대양주뉴스, 1988, “조국과 민족을 위한 기도회”
- 대양주뉴스, 1988, “노대통령 호주 방문 항의 시위”
- 대양주뉴스, 1989, “김승일씨 대담 - 안기부의 분열 책동을 해쳐 나가자”
- 대양주뉴스, 1989, “시드니 김승일은 임수경 평양축전 참가를 도왔다”
- 대양주뉴스, 1989, “한국민족자료실 회원 단식 투쟁”
- 동아일보 호주판, 1992, “한국 양심수후원 카드판매”
- 윤한봉, 2009, 『망명』, 한마당
- 주간생활정보, 1990, “Westpac 은행 서울노조위원장 김선현씨 단식투쟁 돌입”
- 주간생활정보, 1991, “한국의 양심수 지원 카드 판매”
- 중앙일보, 1989, “학생「평축」참가 불허기로 확정”
- 참세상, 1999, “호주, 국보법 반대집회”
- 툼우먼, 2007, “호주의 영원한 순수 진보 - 시드니 민족교육문화원”
- 한겨레신문, 1989, “한겨레 아리랑합창에 세계가 갈채”
- 한겨레신문, 1992, “전국 양심수 9백명 단식”
- 한호타임즈, 1989, “시드니 총영사관앞 데모”
- 호주동아, 1991, “남·북 영화 비교 감상”
- 호주동아, 1991, “조국 민주화 촉구 범동포 서명”

# 해외 민주화 운동 - 호주

## KDF REPORT : Issue & Review on Democracy

**발행일** 2018년 10월 10일

**발행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KDF, Korea Democracy Foundation)

한국민주주의연구소 (IKD, Institute for Korean Democracy)

edit@kdemo.or.kr

경기도 의왕시 내손순환로 132

이 책자의 내용은 본 연구소의 공식견해가 아님

본 연구소의 승인없이 전재 및 인용을 금함

